

광주 아파트 소·형·경·쟁

중대형 분양택지 평형줄이기 잇따라

소형 아파트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이미 중대형 아파트로 분양된 택지를 소형으로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해왔던 대형 건설사들도 소형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아파트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

는 소형주택 브랜드를 내놨다. 금호건설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역세권에 60㎡ 안팎의 소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모색 중이다.

우미건설도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전문 브랜드인 ‘쁘띠-린’을 앞세워 소형주택 사업에 진출했다.

이처럼 LH와 대형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소형 주택시장에 뛰어들

은 ‘약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로 이미 중대형 메리트가 사

수완지구 공급평형 변경안 추진

대형 건설사들도 본격 뛰어들어

어 안전으로 올라온 ‘수완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공급 평형 변경안’을 심의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수완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하지 못한 대형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과 분양은 됐지만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3개 업체 6개 블록을 대상으로 당초 85㎡가 넘는 아파트 면적을 60~85㎡로, 60~85㎡는 60㎡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9개 블록의 세대수는 기존 2226가구에서 2823가구로 597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금호건설·우미건설 등 지역 주요 건설사들은 소형주택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금호건설은 ‘작고 사랑스러운 집’이라는 뜻의 ‘쁘띠메종’이라

라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2082가구로 이 중 1012가구가 85㎡ 이상, 948가구가 61~84㎡로 중대형만 남아있다.

반면 지역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난과 함께 지난해보다 가격이 10~20% 상승했다.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4평 아파트는 나오는 즉시 매매되지만 35평 이상 아파트는 나갈 기미가 없다”며 “평당 가격을 봐도 소형 아파트가 대형을 앞지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보름 장담그기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주민들이 장을 담그기 위해 장독에 메주를 넣고 있다. 전통 된장마을로 지정된 이 마을에서는 매년 직접 수확한 친환경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그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고흥 우주산업+전남대 로봇기술 융합

국내외 과학자 100여명 참석 첫 국제심포지엄

‘우주로봇 산업 메카’를 꿈꾸는 전남도의 우주로봇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기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첫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전남도와 전남대 우주로봇연구센터는 국가전략 산업인 우주로봇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제1회 국제 우주로봇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주로봇과 관련한 국내외 석학들이 다수 참석해 우주로봇 연구의 필요성과 세계 각국의 연구 실태 등을 발표한다.

일본 우주프로그램 총괄기구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미츠시게 오다’ 박사와 세계 최초 자유유영 우주로봇 개발자인 일본 토호쿠 대학 ‘카즈오 요시다’ 교수, 미국 NASA에서 오랜 기간 연구에 참여한 ‘파올로 피오리니’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 교수 등 해외 우주로봇 권위자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이상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강성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1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전남도와 전남대 우주로봇연구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에게 우주로봇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조성하는 한편 각 연구 분야별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로봇의 선진 연구기관인 미국 NASA나 일본 JAXA 등과 업무 협약을 맺거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을 우주로봇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해 2009년 4월 정부의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역별 실행계획에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을 반영시켰다. 이어 지난해 7월 전남대에서 우주로봇연구센터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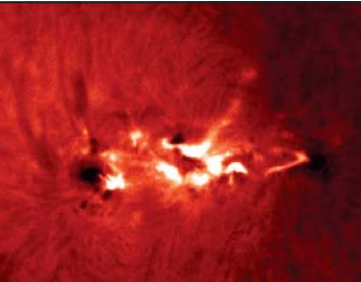
립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전남대 로봇연구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 우주로봇 국가 R&D 과제 기획 및 추진, 국내외 우주로봇 기업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체·연구소·대학 등 110여 기관 및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우주로봇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박종오 전남대 우주로봇연구센터장은 “우주로봇 연구는 한 번 시작하면 수십 년, 나아가 영원히 국가 차원의 지원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며 “우주로봇연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국민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주로봇이란 달을 비롯한 행성의 탐사나 지구궤도상의 위성을 수리하는 등 우주에서 인간 대신 각종 정보를 전송하거나 샘플을 수집하는 로봇을 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월15일 11시10분 태양 폭발 사진.

태양 흑점 폭발

통신장애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해 15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단파통신(HF)이 두절됐으며 수분 내지 수십 분까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폭발은 오전 10시 50분께 태양 흑점 번호 1158에서 발생했으며 오전 11시 현재 초속 400km였던 태양풍은 초속 500km 이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들은 인공위성의 전자장비와 태양 전지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위성의 신호 감소 및 잡음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파연구소 측은 “이번 폭발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수일간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단파 통신은 유선, 이동통신 등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행정 검사로 끝으로 1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1992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 1996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광주지방법원행정 검사
- 2003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
-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행정 검사
- 2007 전주지방법원행정 검사
- 2009 광주지방법원행정 검사

변호사 서 애 린 올림

- 업무개시: 2011년 2월 14일
- 개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70 문전빌딩 3층
- 대표전화: 062) 236-3100

인삼의 뿌리부터 얼매까지 귀하게 담아 피부 재생의 격을 높인다

지난 2천년 동안 사람들은 인삼의 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수 한방과학은 인삼 뿌리의 효능에 진생베리의 성분을 더하면 획기적인 피부 재생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삼 뿌리의 사포닌과 진생베리 성분이 겉과 속에 활력을 더해 재생효과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당신이기애 전하고 싶은 재생의 진실
설화수 자음생크림

Sulwhasoo

